

2022년 12월 9일(금)

263장 이 세상 험하고

- 1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
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
- 2 주님의 권능은 한 없이 크오니
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
- 3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
주 예수 힘 주사 굳세게 하소서
- 4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
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
- 후렴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
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아멘

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

- 1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
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
- 2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
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
- 3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
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
- 4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
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
- 후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 오사
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

기도 담당

12/6(화)	12/7(수)	12/8(목)	12/9(금)	12/10(토)	12/12(월)
우경섭 안수집사	박재동 안수집사	이승근 재적안수집사	김영식2 안수집사	이윤익 안수집사	정준수 안수집사

이른아침예배

(대림절 묵상)

인도 : 장지훈 목사

예배를여는말	인도자
신앙고백	사도신경
찬송	263장
기도	김영식2 안수집사
성경봉독	요기 42:5-6
찬양	누군가 기도하네
설교	『내 눈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, 예수』 이상학 목사
기도	준비된 기도문을 따라
찬송	286장
축도	설교자

< 오늘의 묵상 >

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
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

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

2022년 12월 9일(금)

사랑과 은혜의 하나님!

지난밤에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셨기에,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.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게 하시고, 이 땅의 모든 것,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믿고, 어떠한 자리에서든, 우리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. 그곳이 비록 고난의 자리라 하더라도,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친히 뵈올 수 있다면 당당하고 용기 있게 감당하게 하셔서, 이 땅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.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! 날이 더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, 태초부터 계획하신 새문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,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.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,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기신 강단과 모든 사역, 잘 감당하게 하시고, 당회와 제직, 모든 교역자,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은총의 빛을 비추사, 교회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을 뵈옵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.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. 모든 모임마다 친히 함께 해 주시고,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아름답고 순적하게 하옵소서.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!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, 백성들을 진실히 사랑하게 하시고, 장기간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민생이 안정되게 하시며,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, 공의와 정의가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. 무엇보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속한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켜주셔서,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을 넘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.

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